SINDICATO NACIONAL DE TRABAJADORES DEL SERVICIO POSTAL MEXICANO
"CORREOS DE MÉXICO"

COMITÉ EJECUTIVO NACIONAL

# 격주 뉴스레터 –
# 해당 분야의 주요 사건
# 전 세계 우편 서비스

**제10호**

**2주 기간 18 – 2026 (2026년 9월 16일 – 9월 30일)**

## 파나마

- 디지털 플랫폼 *codigospostalespanama.gob.pa* (INEC과 협력하여 개발)가 공식 출시된 지 4개월이 지난 현재, 당국은 초기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국토를 3x3미터 격자로 나누어 공식 주소 체계가 없는 가구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민간 택배사와 지역 기업들이 '라스트 마일(최종 배송 단계)' 경로를 최적화하기 위해 이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 유럽(스페인,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 목적지 포함)행 우편 발송을 직접 재개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COTEL은 공항 파트너십을 통해 안정적인 국제 발송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과거 미국 내 터미널을 통해서만 처리해야 했던 물량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 과테말라

- 2026년 9월 29일, 과테말라 우체국(Correos de Guatemala)은 사이버 범죄 조직이 우체국을 사칭하고 있다는 공식 보안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기꾼들은 문자 메시지와 악성 링크를 보내 압수된 소포를 "돌려주겠다"는 명목으로 불법적인 온라인 결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이러한 온라인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우편 복구 전략 계획의 심화 단계의 일환으로, 당국은 내륙 지역의 새로운 지점에서 국제 배송 업무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산호세 라 마키나, 산 펠리페 레탈훌레우, 오코스, 토토니카판, 치말테낭고 등의 지자체에서 이제 국제 목적지로의 소포 및 화물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들이 수도의 주요 물류 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었습니다.

## 자메이카

- 자메이카 정부가 기존 우체국 지점을 통합형 대국민 서비스 센터로 전환하려는 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우체국 직원들은 새로운 업무 환경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집배원과 행정직원들은 만국우편연합(UPU)의 'ORE Plus 2026–2029' 프로그램에 따른 기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디지털 거래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 이용을 직접 지원하도록 하여, 전통적인 우체국 업무의 성격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공공 부문 우체국 직원들은 최근 정부와 자메이카 노동조합연맹(JCTU) 간에 체결된 합의의 영향을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합의는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을 보장하는 한편, 조직의 운영 방식 변화 속에서도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우루과이

- 9월 29일 화요일, 우루과이 우편노조(AFPU)는 24시간 전국 파업을 벌여 공공 서비스 업무는 물론 우루과이 전역의 우편물 및 소포 처리와 배송 업무를

  중단시켰습니다. 이번 쟁의 행위는 9월 17일에 열린 대규모 시위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우편 노동자들은 몬테비데오 시내에서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이그제큐티브 타워(Executive Tower)'를 출발해 중앙 우체국까지 행진을 벌였으며, 행진 경로를 따라 대통령실, 기획예산처(OPP), 그리고 우편국 이사회 앞으로 보내는 공식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 노조는 정규직 인력이 대거 감소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매년 약 100명의 직원이 은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결원을 충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9월 말 AFPU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우편 노동자 수는 1,500명 미만입니다. 지난 5년 동안 410명의 노동자가 현장을 떠난 반면, 신규 채용 인원은 96명에 불과했습니다.

## 파라과이

- 역사적인 내부 승진 절차의 결과가 실행됨에 따라 근무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예산이 배정된 공석을 재배치하는 과정을 통해, 노동조합은 총 739명의 직원 중 521명에 대한 직접적인 급여 인상을 이끌어냈으며, 이를 통해 파라과이 우정국 내에서 전례 없는 집단적 임금 형평성을 달성했습니다.

- 2026년 9월 17일, 디나코파(Dinacopa)의 우표 사업부는 파라과이 우정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특급 배송 네트워크인 'EMS 협의체(EMS Cooperative)'의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판을 포함하여 총 37,500장의 공식 기념우표를 발행함으로써 국제 물류 시장에서의 입지를 재확인했습니다.

## 스페인

- 2026년 9월 30일 수요일, 스페인 전역에서 모인 수백 명의 노조 대표와 우편 노동자들이 마드리드에 위치한 스페인 우정공사(Correos) 본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집회는 독립공무원노조(CSIF)가 주도하고 현장 노동자 모임들이 지지하는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지속 불가능한 노동 긴축 정책"을 규탄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사측이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 우편 부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 노조의 불만은 주로 사측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1월에 서명된 '기본 합의(Framework Agreement)'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노조는 인력 감소 중단, 부당한 파트타임 고용 관행 철폐,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 그리고 인력 세대교체 계획의 즉각적인 실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 4개월간 이어진 극심한 긴장과 협상, 그리고 조직적인 시위 예고 끝에, 대표 노동조합들은 2026년 9월 분쟁을 원만히 해결했습니다. 크로아티아 우편노조(HSP)와 '타이거(Tiger)' 노조는 크로아티아 우정공사(Hrvatska pošta) 경영진과 단체협약의 새로운 부속 합의서에 서명하는 최종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 합의서는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보너스 지급, 그리고 금전적 혜택 확대를 공식적으로 보장합니다.

- 노조의 이러한 압박은 과중한 업무 부담과 직결된 것이었습니다. 시장 규제 기관인 HAKOM은 9월 보고서를 통해 크로아티아 우편 시장이 택배 물량 13% 증가에 힘입어 지난 분기 1억 1,500만 유로라는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노조는 이러한 기록적인 수익이 일상적인 업무를 지탱하는 직원들의 구매력 향상에 공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체코 공화국**

- 체코 공화국 대표단은 스페인 대표단과 마찬가지로 9월 말에 열린 'UNI Europa 우편 및 물류(Post & Logistics)' 국제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향후 제정될 'EU 배송법(EU Delivery Act)'에 고용 관련 긴축 조치를 억제하고, 세대 교체를 촉진하며, 우편 서비스의 공공성을 보호하기 위한 명시적 안전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지지했습니다.

- 현재의 고용 안정성은 단체 협약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직원 직접 복리후생비는 물론 문화·사회 기금(FKSP)에 대한 자금 배정을 지속적으로 보장합니다. 이는 회사가 거시경제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추구하는 것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사안으로서, 노동조합이 확고하게 수호해 온 조치입니다.

**나이지리아**

- 나이지리아 우정국(NIPOST)은 새로운 '국가 영숫자 디지털 우편번호 시스템'을 공식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GIS(지리정보시스템) 기술을 활용하여 국내 모든 건물에 고유한 11자리 식별자를 부여합니다. NIPOST의 톨라 오데예미(Tola Odeyemi) 국장은 이번 변화가 배송 실패로 인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연간 손실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자 대표들은 고용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디지털화 및 위치 기반 앱 도입과 함께 기술 교육, 적절한 기술 장비 제공, 그리고 농촌 지역의 배송 물량 관리로 늘어난 업무량에 대한 보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공공 부문 노동자인 우체국 직원들은 3일간의 경고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행동은 '국가 공공서비스 합동 협상 위원회(JNPSNC)'가 주도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9월 21일 정부에 요구 사항을 전달했으나 볼라 티누부(Bola Tinubu) 대통령 정부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일반 조합원들은 심각한 생활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요구 사항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연료비 인하를 위한 직접적인 조치 등이 포함되는데, 이는 우편 집배원과 물류 종사자들의 구매력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입니다.

**일본**

- 디지털화로 인한 우편 물량 감소로 인해 해당 기업의 물류 및 우편 사업 부문에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일본 정부는 특히 지방 지역의 우체국 시설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연간 약 650억 엔의 보조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자금 지원이 고용 유지와 광범위한 지역 우체국 네트워크의 폐쇄 중단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요구하며 자금 집행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일본우정(Japan Post)은 자사의 표준 택배 서비스인 '유팩(Yu-Pack)'의 요금을 평균 10% 인상했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운송 및 물류 업계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본우정그룹 노동조합(JPGU) 등 관련 노조는 운영 현실을 반영하고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요금 체계를 요구해 왔으며, 이를 통해 우편 사업 부문 일자리의 매력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 출처:**

Correos Panamá, Infobae, Jamaica Information Service, Soriano al Día, Direccion Nacional de Correos del Paraguay, Madridiario, Nezavisni hrvatski sindikati, Česká Pošta, s.p., nippon.com

**작성자: ANGEL BARRIOS CUEVAS**
**행정 지원**
**SINDICATO NACIONAL DE TRABAJADORES DEL SERVICIO POSTAL MEXICANO**
**"CORREOS DE MÉXICO"**